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2. 4. 27.(수) 06:00 ~ 23:00
- 상담건수¹⁾: 805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4명)

-프로그램명 : 월화드라마 「크레이지 러브」 [최종회]

-방송일시 : 2022. 4. 26.(화) 2TV (21:30-22:40)

일타 강사 노고진(김재욱 분)과 비서 이신아(정수정 분)의 로맨스를 다룬 「크레이지 러브」가 이날 막을 내렸다. 중간에 지지부진한 전개로 두 사람이 해피엔딩을 맞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노고진이 반지를 건넸고 이신아가 프러포즈에 화답해 보기 좋았다. 고답 사람들도 각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어 다행스럽다. 그동안 고생한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한다.

○ 방송 제언(3명)

-프로그램명 : 「시사기획 창」 ‘혐오 팬데믹’

-방송일시 : 2022. 4. 26.(화) 1TV (22:00-22:50)

인간이 혐오에 빠지는 이유와 확산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았다. 일례로 지하철 장애인 시위와, 이에 부정적인 시민 반응이 다뤄졌는데 해당 주제에 적합하지 않게 여겨졌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아닌, 교통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측은지심에 빠지기보단, 시비지심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본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외 1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805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430	7	-	-	368	805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64	239	23	-	-	179	805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19	686	-	805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70	5	101	129	805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보자들」 - 후속 방송 요청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사건건」 - 출연자 제언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사기획 창」 - 방송 제언 ○ 「아침마당」 - 방송 호평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화드라마 「크레이지 러브」 - 방송 호평 ○ 수목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 제목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진우 라이브」 - 진행자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꽃게 구매’ 연락처 문의 49건 ○ 「2TV 생생정보」 - ‘생선숯불구이’ 연락처 문의 23건 ○ 「아침마당」 - ‘시청자 참여’ 연락처 문의 19건 ○ 「가요무대」 - ‘방청 신청’ 문의 17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출연자’ 연락처 문의 9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5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38건 ○ 「수신료」 문의 30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474건 ○ 「전화교환」 문의 10건 ○ 「견학」 문의 1건 외 2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29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방송 요청	<p>○ 「제보자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0. 10.~2020. 9. 2. 2TV 방송. (총 182부작) - 시청자의 제보를 단서로 미스터리로 숨겨진 진실과 불가사의한 사건의 이면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매회 흥미진진하게 시청해왔는데 중영이 되어 무척 아쉽다. 「추적 60분」을 비롯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까운 시일 안에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보 도]	
출연자 제언	<p>○ 「사사건건」 ‘여의도 사사건건’(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4. 26.(화) 1TV (16:00-17:00) -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주요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방송 말미에 김경진 전 의원이 발언 도중 진행자를 향해 큰소리를 치는 모습이 방송됐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실망스러웠고, 보기에 좋지 않았다. 서로를 배려하며 건전하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시사·교양]	
방송 제언	<p>○ 「시사기획 창」 ‘혐오 팬데믹’(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4. 26.(화) 1TV (22:00-22:50) - 인간이 혐오에 빠지는 이유와 확산하는 과정을 추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을 찾아보았다. 일례로 지하철 장애인 시위와, 이에 부정적인 시민 반응이 다뤄졌는데 해당 주제에 적합하지 않게 여겨졌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아닌, 교통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한 불만이었기 때문이다. 지나친 측은지심에 빠지기보단, 시비지심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본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4. 27.(수) 1TV (08:25-09:30) - ‘도전! 꿈의 무대’를 시청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기다린다. 본인뿐 아니라 지인들도 해당 코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시청하며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참가자에게 투표도 한다. 전염병 등으로 힘들고 어려운 요즘 누군가를 응원하고,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 다행스럽다. 남녀노소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건전하고 유쾌한 방송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드라마]	
방송 호평	<p>○ 월화드라마 「크레이지 러브」 [최종회](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4. 26.(화) 2TV (21:30-22:40) - 일타 강사 노고진(김재욱 분)과 비서 이신아(정수정 분)의 로맨스를 다룬 「크레이지 러브」가 이날 막을 내렸다. 중간에 지지부진한 전개로 두 사람이 해피엔딩을 맞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노고진이 반지를 건넸고 이신아가 프러포즈에 화답해 보기 좋았다. 고담 사람들도 각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어 다행스럽다. 그동안 고생한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를 전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제목 제언	<p>○ 수목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수-목) (21:50-23:00) - 빠르고 강렬한 스포츠 로맨스 드라마로, 배드민턴 실업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점이 신선하고 흥미로워 열심히 시청 중이다. 다만 속도의 단위는 km/h인데, 길이의 단위인 km로 제목을 표기한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시적 허용’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공영방송이고 한 작품의 제목인 만큼 표기 오류 논란이 발생해 아쉽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진행자 제언	<p>○ 「주진우 라이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R (월-금) (17:05-18:56) - 유튜브 생중계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 KBS 1라디오를 시청한다. 주진우 기자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사 정보를 전달해주는 해당 방송도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패널이 출연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진행하지만, 혼자 진행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제작진과 방송 관계자들이 많은 방송국 실내에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